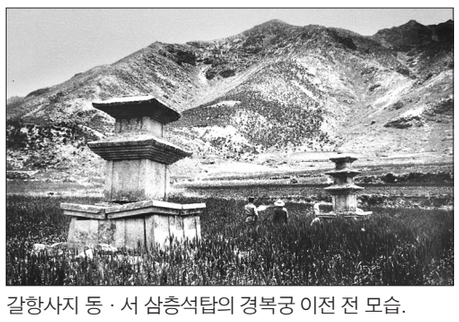
박물관 반입된 갈항사지 동·서탑, 110년 유랑 끝낼까

성보유랑 聖寶流浪

⑥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물 정원에 있는 국보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의 경복궁 이전 전 모습.

758년 건립연대 새겨진 신라 석탑
1916년 도굴 훼손 후 경복궁 이건
총독부 문서 '갈항사탑 반입' 확인
동 · 서탑 이건시기 놓고 기록 엇갈려
조계종 · 김천시 '환지본처' 한목소리
김천시, 발굴 · 사적 지정 추진 본격화


2024년 진우 스님이 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예방을 받고 갈항사지 석탑 김천 이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금오산 서쪽 자락. 천년고찰 갈항사(葛項寺)는 사라지고 절터만 남았지만, 이곳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두 개의 빈자리가 있다. 국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섰던 자리다. 지금 그 자리에는 표지석만이 남아 두 탑의 부재를 알리고 있다.

두 탑은 현재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물 정원에 나란히 서 있다. 1916년 일제강점기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한 세기가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다시 한 번 자리를 옮겼다.

갈항사는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신라 화엄종 사찰이다. 〈삼국유사〉에는 당나라에서 화엄을 배우고 귀국한 승전 스님이 개령군(당시 지명)에 갈항사를 창건하고 돌 80개를 모아놓은 뒤 〈화엄경〉을 강설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갈항사는 신라 38대 원성왕(재위 785~798)의 외삼촌 언적 스님, 어머니 박 씨(소문왕태후), 박 씨의 동생 등 원성왕 외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번성해 나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도 원성왕 외가와 연결된다. 758년(경덕왕 17)에 세워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언적 스님과 두 누이가 탑을 조성을 발원했다는 내용이 동탑 상층기단 면석에 이두문으로 새겨져 있다. 탑 자체에 조성 시기와 발원자가 남아 있어 신라 불교사뿐 아니라 미술사·금석학·언어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두 탑은 갈항사가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는 원찰이었음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갈항사는 약사암, 굴암사 등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지만, 임진왜란 시기인 1592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동·서 삼층석탑이다. 두 탑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1916년이다. 그해 2월 12일 도굴범들이 탑 일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조선총독부의 고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그동안 두 탑의 이동 경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일본인 도굴꾼이 탑을 해체해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다", "인천부두까지 운반됐지만 일본 반출에 실패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행정 문서를 살펴보면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공개돼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다이쇼 5~8년도 고적조사관계철〉에는 1916년 생산된 17쪽 분량의 '경상북도 김천군 갈항사지 유존 고석탑 및 탑출물' 문건이 별도로 편철돼 있다. 같은 해 열린 제1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제3호에는 정확히 '김천 갈항사탑(葛項寺塔) 반입[取寄] 건'이 다뤄지고 있다. 갈항사탑을 현지에서 가져오는 일이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행정 사안으로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탑이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1916년 총독부 행정자료에서는 '인천부두'나 '일본 밀반출'을 직접 입증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천 반출설'은 후대 기록에서도 내용이 엇갈린다. 2003~2004년 지역 언론에서는 1916년과 1921년 탑이 인천으로 운반됐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반면 2012년에는 이미 경복궁에 있던 석탑을 '광복 직전'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인천부두까지 운반했다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한다. 같은 '인천설' 안에서도 이동 시점이 수십 년 차이가 난다.

두 탑이 경복궁으로 옮겨진 시점도 자료마다 다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금오산 갈항사' 항목은 도굴 사건 이후 동탑은 1916년 6월, 서탑은 1921년 3월 각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겼다고 기술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의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관련 해설은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이건하던 중"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고 명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의 현행 석탑 설명도 두 탑의 경복궁 이전 시점을 1916년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1차 자료에서 명확한 것은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갈항사탑 반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이다. '동탑 1916년·서탑 1921년 이건설'은 2차 자료에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사료 검증이 필요하다.

총독부가 남긴 '반입'이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유산 관리의 구조를 보여준다. 보존을 명분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탑은 천년 가까이 머물던 사찰 터와 그곳에 이어진 신앙공동체에서 분리됐다. 해방 이후에도 서울에 남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야외 전시 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김천시와 지역 불교계에서는 두 탑의 '환지본처'를 요구해 왔다.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2024년이다. 김천시는 2024년 9월 3일 김천시립박물관에서 '국보 갈항사지 삼층석탑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반환 운동을 본격화했다. 추진위원에는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동위원장은 김천시장이 맡았다. 추진위는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환지본처에 힘을 보탰다. 2024년 9월 23일 당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김충섭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두 탑의 김천 이전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2024년 9월 10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갈항사지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탑은 미적인 감상의 대상물이 아니라 사찰의 중심이자 신앙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탑이 있어야 할 곳은 사찰이고, 그 탑을 가장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불교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김천시민과 불교도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김천 시민과 불교도들에 의해 세심히 관리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지본처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부족하다. 석탑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과 방재시설,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갈항사지 전체의 역사적 공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탑의 원래 위치와 주변 건물지, 사찰의 가람 배치를 확인해야 비로소 두 탑은 박물관의 전시물에서 갈항사라는 역사 공간의 일부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선례도 있다. 일제강점기 서울로 옮겨졌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장기간의 보존처리와 현지 정비 끝에 2024년 112년 만에 법천사지로 돌아갔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역시 보존·전시시설을 갖춘 뒤 오대산으로 환지본처됐다. 문화유산은 안전한 보존환경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갖춰질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그렇기에 김천시는 두 탑의 환지본처를 위한 사전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천시는 갈항사지 민간 소유 농지 11필지 가운데 9필지(1만2140㎡)를 매입하고 두 차례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갈항사지 3차 시굴조사 및 1차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는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寺域)을 확인해 주변 정비 및 유적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관계자는 "발굴조사와 함께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관련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2029년까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우선적으로 도기념물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탑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갈항사지의 사적 지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